

2018년

교회여·남 평등주간

2018년 12월 9일(일) ~ 15일(토)



“교회 성폭력, 이제 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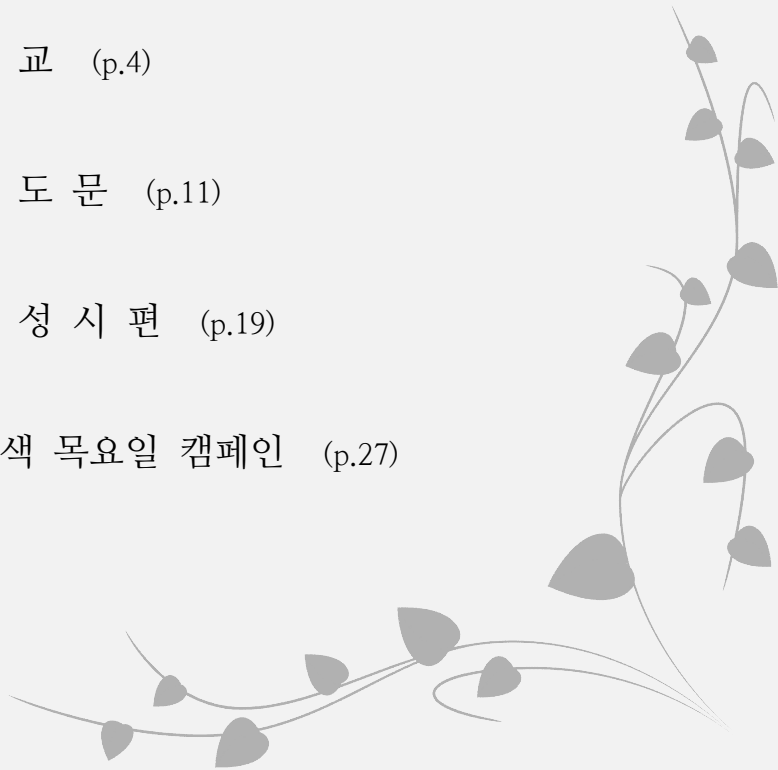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2018 교회여·남평등주간

목 차

- 취 지 (p.3)
- 설 교 (p.4)
- 기 도 문 (p.11)
- 여 성 시 편 (p.19)
- 흑색 목요일 캠페인 (p.2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는 2000년부터 UN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이 있는 주간을 교회여·남평등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간에는 한 해 중 뜨거웠던 이슈, 교회여성들이 직면했던 과제 혹은 함께 풀어야 할 주제를 정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교회 성폭력 근절과 성정의 회복을 위해서 소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교회와 사회 내 만연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Me too, #With you 운동」에 기독교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교회 성폭력, 이제 그만”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사회 풍토 전반에 만연한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를 개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2차, 3차 가해를 막기 위한 용기 있는 외침에 함께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소책자에는 교회와 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차별에 도전하고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오랫동안 세계교회가 전개하고 있는 “흑색 목요일 (Thursdays in Black) 캠페인” 소개문, 매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6편의 기도문과 설교문 1편을 수록하였습니다.

* 집필진: 한국염 목사, 이은주 목사, 남궁희수 목사, 이영미 목사
/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 올해 교회여·남평등주간은 2018년 12월 9일(일)~15일(토)입니다.

다말,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국염 목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말이라는 한 여성이 겪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말은 다윗의 딸로 공주였으나 이복 오라비 암논에게 성폭력을 당해 그 후유증으로 일생을 비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다말 이야기는 왜 성폭력이라는 것이 일어나는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주변에서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는지, 성폭력으로 고통 받은 여성들이 얼마만큼 참담한 삶을 사는지 잘 보여줍니다.

왜 성서는 다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말 사건이 성서에 기록된 것은 성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음을 고발하고, 성정의를 실현하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성폭력에는 강간이라고 불리는 성폭행, 몸을 더듬는 성추행, 말로 음담패설을 하거나 상대 몸과 성을 비하하고 희롱하는 성희롱 등이 해당됩니다. 성폭력은 다말 경우에서 보듯이 사랑이라는 말로 은폐되지만, 욕정을 채우려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이복 오라비 암논이 아름다운 다말을 보고 욕정을 품고, 피를 내어 피병을 알았고, 다말이 병문안을 오자 강간을 합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사정합니다. “오라버니, 이스라엘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오라버니가 내게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수치를 당하고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처녀를 욕보여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기어코 다말을 욕보입니다.

성폭력은 근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성을 지배하려는 성 지배욕이 원인입니다. 암논 경우에서 보듯이 성폭력가해자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합니다. 아동에게는 대부분 사탕을 주고 피거나 유인해서, 청소년에게는 돈과 물질 공세로, 여성에게 함정을 파서 힘으로 정복합니다. 암논에게서 보듯이 사랑하는 마음

으로 성폭력을 했다는 것도 핑계일 뿐 욕정을 채우려는 욕망이 컸고 그 욕망을 채우는데 권모술수와 힘을 뒷받침합니다. 암논이 다말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았듯, 성폭력은 사람을 인간이 아니라 성적 욕망의 도구로 보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가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성폭력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려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당하는 현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말은 자신이 무고하게 성폭력을 당했음을 율법에 따라 알립니다.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성폭력도 금하고 있으며, 특히 근친에 의한 성폭력을 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율법(신명기 22장 25절-27)은 “소리를 질러도 구하여 줄 사람이 없었을 경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죄가 없고 가해자를 살인죄인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소리칠 수 없는 상황이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저항할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항할 힘이 없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폭력을 당할 경우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을 당하면 당한 피해자가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성서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성폭력을 가한 사람의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까지도 성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 편에 서서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입장을 두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강간을 당한 다말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발하는 당시 법에 따라 머리에 재를 뿌리고 입고 있던 색동옷 소매를 찢고 목을 놓아 울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정한 바에 따라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을 호소했습니다만, 다말을 보고 사태를 짐작한 오라버니 압살롬은 그 일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합니다. 비록 율법에서는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다말이 정조를 잃어버린 여성으로 비난받거나 암논을 유혹한 ‘꽃뱀’으로 간주되어 기피되는 현실을 압살롬이 알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율법이 정한 바에 따라 암논을 심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암논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말에게 돌아온 것은 침묵하라는 강요와 외면뿐이었습니다. 다말은 침묵을 강요당한 채 한 많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성서는 다말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오라버니 압살롬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처량하게”라는 말 속에 엄청난 고통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 역시 딸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당한 것을 듣고서 몹시 분개했지만, 암논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자신이 밧세바를 성폭행한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그 후에 압살롬이 동생 다말에게 한 보복으로 암논을 죽였을 때는 입고 있는 옷을 찢으며 누워버립니다. 만일 다윗이 율법이 정한 바에 따라 암논을 처벌했다면 형제

살인이라는 참사는 밀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권력으로 악을 덮으려 했기 때문에 더 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딸이 강간당했음에도 압논을 심판하지 않는 다윗의 태도, 압논이 다말에 대한 보복으로 죽임을 당했을 때 애통해 하는 다윗 모습은 피해자 편에 서지 않고 가해자 편에 서서 사건을 바라보는, 가부장 사회의 단면을 여지없이 드러내줍니다.

그런데 다말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희망을 봅니다. 다말사건은 강간당하고 침묵당한 고난의 사건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딸 이름을 희생당한 고모 다말의 이름을 따서 ‘다말’이라고 지음으로써 억울한 다말의 고통을 기억하고 위로합니다. 성서는 성폭행당한 여성들의 고난을 묻어두지 않고 고발합니다. 다말뿐만 아니라 성서 속에 억울하게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몇 차례 더 나옵니다. 들판에 놀러나갔다가 세겔에게 강간당한 야곱의 딸 디나, 집단강간당하고 죽은 레위인의 첩, 다윗에게 강간당한 우리아의 처 밧세바 등, 이렇게 성폭력으로 고통당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성서가 전승하도록 한 것은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 법은 성폭력을 악이라 규정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함이라고 증언합니다. 다말 사건은 이렇게 성폭력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고 은폐하는 가부장사회의 잘못된 태도를 고발하고,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여인들의 한과 고난을 기억하고 전승하고, 이를 통해서 성폭력 없는 사회를 일구도록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말 이야기를 다시 상기하는 것은, 다말, 디나, 레위인의 첩, 밧세바 등 남성들에 의해 성폭행 당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그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장에서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성폭력, 집단강간, 근친강간, 납치강간, 일본군성노예제가 보여주듯 전쟁 중에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권력에 의한 성폭력 등, 성서에서 고발한 여성들에 가해지는 성폭력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살인, 강도 등의 범죄는 줄어드는데 유독 성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과 청소년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서도 성폭력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6년 사이에 3배가 폭증했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나 온라인상에서 사진을 합성하는 등 비접촉형 성폭력이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데이트폭력 역시 급증해 주요 치안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성인 여성에 가해지는 성폭력도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율이 현재 전쟁과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성폭력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경찰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2011-

2015)간 전문직 성폭력 범죄 검거자 1,258명 중 종교인이 450명(35.7%)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그중에서도 개신교 목회자들에 의한 성폭력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성폭력 범죄자를 살인죄와 같은 중벌로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다윗왕이 이 법을 무시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성폭력특별법이 엄연히 있지만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여성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피해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성폭력피해에 대한 고통도 문제지만, 성폭력피해를 드러냈을 때 가해자는 2차 폭력이라고 합니다. 성폭력을 폭로해도 그 조직 안에 있는 자들이 조직 보호 차원에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냉담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충격을 받고 입을 닫게 되며, 설령 드러낼 경우 되레 가해자가 부인하면 입증을 해야 하고,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받거나, 법정에 가도 피해자가 목숨을 걸고 저항한 증거가 없을 경우, 가해자가 처벌되는 사례가 드뭅니다.

최근 서지현이라는 여검사가 8년 전 동기 부친 상가집에서 고위상사에게 당한 성폭력을 고발했습니다. 성추행을 당하는 현장에 법무부 관계자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성추행을 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성폭력 피해로 아이 유산, 발작, 극단적인 생각 등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고 성폭력을 자기 잘못이라고 탓했다고 합니다. 서검사는 인터뷰에서 “제가 범죄 피해를 입었고 또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거의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닌가, 굉장히 내가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했구나 하는 자책감에 굉장히 괴로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피해자분들께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는데 8년 걸렸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비단 서검사만이 아니라 성폭력피해를 입은 많은 여성들이 겪는 일입니다. 검찰 뿐만 아니라 상명하복이 중시되고 위계질서가 강한 폐쇄적인 조직문화에서는 문제가 일어나면 꽃뱀으로 몰리거나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까지 함께 찍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용기를 내어 고발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고 급기야는 자기 잘못으로 돌려버립니다.

교회 내 성폭력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반 성폭력피해 여성들이 겪는 고통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신고해서 주의 종을 해롭게 하면 벌 받을 텐데...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등등 신앙적인 면에서 위기까지 겪게 됩니다. 더욱 성폭력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네 탓’이라며 피해자 잘못으로 돌려버리는 주위 시선입니다.

지금 한국사회를 달구고 있는 뜨거운 성범죄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그루밍 성폭

력'(grooming)입니다. 그루밍 성범죄란 피해자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 피해자와 신분을 쌓고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도록 세뇌하거나 호감을 주면서 지배관계를 만든 뒤 성적으로 가해행위를 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을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인천 새소망교회 청년사역을 하는 김목사가 여성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러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미성년자들이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목사를 신뢰하게 만들어 성희롱과 성추행은 물론 성폭행을 했습니다. 전체 피해자는 26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노출되자 김목사는 목사직을 내려놓고 성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것, 피해자들에게 절대 연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서를 썼지만 이행하지 않고 도피해버렸습니다. 피해자들은 김목사의 목사직 사임과 공개사과, 교단의 헌법에 성폭력 처벌규정 명시, 피해자들에 해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성범죄는 대부분 이 분야의 성폭력에 속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여성교인들에게 친밀감을 형성하고, 성서를 인용해서 신앙의 이름으로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 자행하는 성폭력은 그루밍 성범죄의 전형입니다.

서검사는 자신이 고발하게 된 이유를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절대 스스로 개혁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범죄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는 절대 피해를 입은 본인 잘못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해자가 최근에 종교에 귀의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해자는 서울 강남 모교회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다는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간증 때문에 서검사가 증언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서검사의 말처럼 회개는 일차적으로 피해당사자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에 귀의만 하면 모든 잘못이 다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교회 가르침이 그런 파렴치한을 만들어냈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벌을 받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값싼 회개는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성폭력을 수사해야 할 검찰에서 동료로 상대로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서검사 증언은 검사와 같은 전문직 신분에서도 이렇게 성폭력이 발생하는데 일반에서는 얼마나 심하겠느냐?” 하고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고,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은 피해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 “Me Too!”운동과 “With You!” 운동을 촉발했습니다.

왜 이렇게 여아들과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이 끊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사회가 성차별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차별 사회는 자기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계층에 대해 무시하고 함부로 합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성폭력입니다. 힘 중심인 사

회에서 남성들이 자기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힘을 무기로 힘없는 여성과 아동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인식,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은 여성을, 아동을 차별해서 생기는 잘못된 범죄이며 악임을 깨닫는 사회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성폭력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유엔인권선언 1조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창세기 1장 26절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천부인권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서 존엄한 존재임을,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존재임을 선언합니다. 어느 한 성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차별하는 매우 큰 죄를 범하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기반으로 한 교회에서 성폭력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성정의와 더불어 우리가 신앙인으로 생각할 것 하나는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교회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만난 사람을 돕고 함께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폭력피해자와 강도만난 사람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는 강도며, 피해자는 강도만난 사람입니다. 이제 성폭력피해자를 강도만난 사람으로 인식하고 위드유를 해야 합니다. 강도만난 자를 두고 피해자만 바리새인이나 레위인처럼, 한국교회는 성폭력피해자를 외면하고 그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강도만난 이의 이웃이냐고 물은 초점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사마리아인 비유의 핵심은 강도만난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국제인권기준이 피해자 중심주의이듯이, 피해자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중심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교단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성폭력 피해자의 편에 서기 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그 자리를 피해하려고만 합니다. 굳이 최후의 심판 비유를 들지 않더라도, 강도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용납이 안 되며, 더더욱 강도의 편에 서서 성폭력 피해자를 외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강도만난 이를 여관에 데려다주고 회복할 때까지 보호토록 한 사마리아인처럼, 교회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마리아인이 되고 여관이 되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당신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위드유’입니다.

성서는 성폭력이 욕정을 해소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성폭력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잘못이 있고, 성폭력은 악으로서 가해자를 처벌해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폭력 가해자의 욕망을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하고 성폭력피해

자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편에 서서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교회내 성폭력 문제는 비단 목회자나 종교지도자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성폭력 문제에서 우리 모두는 가해자이거나 피해자, 방조자이거나 방관자라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말의 편에 서서 다말들에게 격려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Me Too!”에 한국교회가 “With You!”, 응답해야 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힘내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격려와 함께 성희롱과 성폭력이 만연한 문화풍토를 바꾸고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를 성평등교회로 만들고, 교회 안에 있는 성폭력을 추방하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교회가 자정될 때 그 힘으로 사회를 자정시킬 수 있고, 이 땅에서 다말의 울음소리가 그치게 될 것입니다.



기 도 문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대지를 적시는 비와 같이,
이 땅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임하시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낮과 밤을 운행하시고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어 만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동역할 수 있도록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더불어 사람의 행위와 정신 그리고 기계를 통한 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슬기와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을 고백합니다. 온 세상 안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들판의 생명이 결실을 맺고 도시 한 가운데에서 느껴지는 활기 그리고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 안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빛을 가리우는 어둠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안에 탐욕과 이기심이 힘을 얻으며, 창조세계의 다양한 아름다움은 갈등의 도구가 되어버렸고, 잘못된 힘의 분배는 고통과 분열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만드신 인간의 성(性)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는 개인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매서운 갈등을 낳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선하게 대하도록 하옵소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구분과 경계를 짓지 않으며,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性)의 차이가 약한 이들을 억압하는 권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간구에 공평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들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이끌어주시어,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으로 불평등의 늪에서 교회를 건져주시고, 서로 다름이 축복이 되는 성 평등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정의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나라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노동하며, 불의한 길에 서지 않으며, 말과 행위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고난과 탄식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상한 자를 낮게 하는 이가 곧 하나님나라의 가족으로 초대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교단의 법과 제도 또한 교회의 권력과 명예를 탐하는 자들은 하나님나라의 빛을 잃고 부끄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악한 기운이 있는 곳에 정의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떳떳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약한 이들은 갈수록 소외되어 갑니다. 힘을 가진 이들은 비통한 이들의 소리에 귀를 닫았고, 교회의 담벼락은 높아져만 갑니다. 교회의 문을 단단히 걸어잠그기 위해 온당치 못한 교회법이 계속 제정되고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에 눈먼 그리스도인들은 앞다투어 오만한 자리에 오르려 탐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주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과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인간에게 스며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교회와 사회의 양심을 깨우게 하시고, 불평등 아닌 평등이, 불의 아닌 정의가, 미움 아닌 사랑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지친 이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속히 우리에게 오시어, 억압과 폭력에 저항하는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세우신 이 땅의 교회가 생명과 평화 가득한 하나님나라를 온전히 닮아 가도록, 우리를 정의의 길로 이끄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평등하게 지으시고, 더불어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남이 서로 협력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참된 희망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어리석은 우리는 한국교회 내 성문제에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며 회피하였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안위가 더욱 중요하였습니다. 성문제를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아픔으로 치부하였습니다. 상처 난 이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교회의 오점을 가리는 일에 몰두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흔적을 없애며, 침묵하였습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보살피기보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안위만을 지키려했던 우리의 이기심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연약한 자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몸과 영혼이 고통을 당하였음에도 자신을 자책하며, 눈물로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수많은 여성들을 기억합니다. 위계에 의한 일방적 피해자임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기억합니다. 위계와 권력으로 가해한 범죄자들보다, 피해입은 이들의 괴로운 날들이 하염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억울함 당한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는 아이의 심정으로 주를 찾는 피해자들과 온전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주시고, 진실을 바르게 드러나게 하셔서, 탄식하는 자들이 더 이상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말과 행동을 통하여 이들에게 가해지는 2차, 3차의 거짓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교회공동체가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어주는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평화롭고 평등하게 살도록 하신 은총과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창조질서를 거스르며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동일한 피조물임에도 서로를 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고, 짓밟으며 억압을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성직자라는 가면을 쓴 권력자들은 힘과 위계를 악용하여 신자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 상처받은 여성들을 거짓 돌봄으로 회유하고, 성적으로 접근하며 길들이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교회는 신뢰를 잃어가고, 사랑을 설파하는 목회자들의 위선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저들이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고, 참으로 반성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의 안위를 위하여 개인의 죄를 사사롭게 하는 어리석음을 주께서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는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누군가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지나친 권위주의와 계급적 의식은 이제 사라져야 하며, 교회 내 범죄가 발생했을 시 적용되어야 하는 마땅한 권징의 기준과 제도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정당한 치리와 징벌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한국교회와 목회자의 거짓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려는 행동이야말로 교회공동체를 혼드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국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게 하옵소서!

교회 내의 성윤리회복을 위해 전교인과 목회자가 함께 성 평등 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같은 교육을 도모하게 하시고, 올바른 분별력과 깨달음으로 평등한 공동체를 이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께서는 이 땅에 교회라는 사랑의 집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사랑의 띠로 우리는 모든 차별과 배제, 미움과 분쟁을 극복하는 일을 위하여 교회로 부름 받았습시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름을 존중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볼 때, 교회는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 끊어진 것들을 이어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시켜왔습니다. 힘 있는 이들이 권력으로 세상 앞에 서려 할 때, 교회는 힘 없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모든 이들이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는 평화의 공동체를 세워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서로 섬기며, 연합하여 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연대의 맞잡은 손이 있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지위에 있는 이도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숭배도, 자기 비하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일 뿐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랜 시간을 지나오며, 교회 안에는 성차별적인 문제가 뿌리 깊이 지속되어왔고 이로 인한 힘의 남용은 일상화되어 왔습시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장로라는 이름으로, 남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힘의 남용에 무수히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음을 고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잘못된 교회의 문화와 관행들을 고치시고 피해자들이 치유되도록 도우소서. 교단과 각 기관들에 성 평등 의식과 제도를 심어주시어 한국 사회의 권위와 위계적인 면들을 교회가 벗어버리고 존중과 공존의 가치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차이를 존중하며 돌봄과 대화로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문화가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집으로 새롭게 개혁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주께서는 이 땅에 교회라는 평화의 집을 세우셨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보금자리이며, 소외된 이들이 쉼과 힘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모든 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교회는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흔들리며 방황한지 오래 되었음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권력과 돈에 취해 수많은 잘못을 저지른 종교엘리트들과 지도자들의 모습에 가슴을 치며 탄식합니다.

최근 교권을 가진 근본주의 개신교인들은 반이슬람, 반동성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살롬의 나라, 평화로운 공존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짓밟는 일이며, 수많은 이들의 생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임을 고발합니다.

부끄러움 가운데 참회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세상에서 버림받는 마지막 한 영혼까지 품는 생명의 보루, 안전한 평화의 집이어야 할 교회가, 혐오의 언어와 문화, 폭력을 생산하는 곳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됨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소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교회! 모든 생명이 아름답고 행복한 여정을 걷도록 돕는 교회! 바로 이것이 교회가 걸어야 할 길임을 고백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여받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를 돌아봅니다.

성찰과 실천이 부족한 우리의 신앙, 그리고 교회 안팎의 고난 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안일했던 우리의 신앙을 참회합니다. 이제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평화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스스로를 개혁하게 하옵소서. 용기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성들이 교회의 폭력 문화를 극복하고 평등, 평화, 생명 사랑의 지향으로 나아가도록 교회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 성 시 편

1. 하나님 강포한 자들이

어찌하여 악한 일을 하고도 시치미를 뚝니까

그들은 어찌하여 순전한사람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도 태연합니까

2. 그들은 속임수의 명수

길목에 파리 뜬 뱀처럼 호시탐탐 여성을 노립니다.

3. 그들은 순수한 사랑보다 욕정을 더 즐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욕심을 채웁니다.

4. 그들은 간사한 혀를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하나님의 딸을 욕보이며

무슨 짓이든 저지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 하나님의 종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며 우리를 유린했습니다.

5.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별거뻐고 살았다며

죄 없던 자는 별거뻐어도 부끄러울 것 없다는 말에 옷을 벗던 날

우리 몸은 그들 장막에서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6. 사람들이 그들이 죄 값을 치루는 것을 보고

“저 자는 하나님의 종임을 내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성욕의 도구로 삼고
하나님의 딸들에게 희롱과 폭력을 일삼던 자다.”
하며 손가락질하기를 원합니다.

7.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
오히려 폭력 당한 우리를 유혹자라 비난하면서
있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집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갈 수가 있었습니까

8. 우리를 박해한 이들이

하나님의 종 자리를 면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성폭력이 없어지는 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여성시편 기편 성폭력 피해자들의 기도

1. 하나님, 당신의 등은 언제나 따뜻한 어머니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등에 업히어 오랜만에 단잠을 자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소리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습니다.
2. 나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저의 하나님, 당신입니다.
나를 도우시고, 이 수렁에서 건져 주십시오.
영원토록 약자 편에 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형편을 두루 살펴 주십시오.
3. 하나님은 어릴 적 내가 몰래 숨곤 하던 장롱 속처럼
그렇게 비밀스레 나를 보듬어 주시고 숨겨 주십니다.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붙들고 하소연해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은 내 존재의 견고한 텃줄과도 같습니다.
4. 세상의 모든 약자와 상처 입은 자의 하나님,
내 삶이 더 이상 불한당 같은
폭력배 놈들에게 유린당하지 않도록
불꽃같은 눈으로 지켜 주십시오.

5. 어려서부터 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나의 어머니, 또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여자답게, 얌전하게 처신하며 살았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사내들 눈과 마주칠까봐

땅만 보며 걸었습니다.

미니스커트 한번 못 입고 빨간 루즈 한번 못 바른

조신한 처녀가 바로 나였습니다.

6.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하나님의 생생한 숨결에 젖어 산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십브라와 부아처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을 받아주시는

산파라고 믿었습니다.

7. 내 잘못이 아니었다고 아무리 자위해도

나를 향하는 손가락질들이 칼이 되어 심장에 박힙니다.

8. 과거를 변명할 수도, 미래를 꿈꿀 수도 없습니다.

내 시간은 그 날 이후로 정지해 버렸으니까요.

9. 과거를 변명할 수도, 미래를 꿈꿀 수도 없습니다.

내 시간은 그 날 이후로 정지해 버렸으니까요.

10. 착하기만 했던 내 삶이 송두리째 분열되고 파괴될 때

조선의 순결이데올로기는 차라리 은장도를 슬며시 내미는군요.

세상의 이중잣대가 나더러 '더럽다'고 침을 뱉는군요.

11. “너는 더럽혀진 몸이다. 감히 그런 몰골로 성전 문을 넘어
어디 음탕스럽게스리. 거룩하신 하나님도 널 버렸으니
너는 이제 우리 밥이다!”
12. 모태에서부터 나를 아시고 조성하시고 길러주신 하나님,
내 생명을 어여뵈 여기사 힘을 주십시오.
어서 달려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13. 내가 잃어버린 것은 순결이 아닙니다.
누구도 범접치 못할 존재의 온전성/거룩성/아름다움.
당신이 회복시켜야 합니다.
14.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이
도리어 부끄러워 고개도 못 들게 해주십시오.
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바리새인들과 남성중심의 윤리, 제도...
그것이 바로 내 아픔의 근원입니다.
15. 실낱같이 고개를 드는 새로운 희망 하나 -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입니다.
내 눈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부디 세상의 온갖 편견을 모조리 거두어 주십시오.
16. 조개의 상처에 자꾸 딱지가 앉아 아물어가면서
진주가 탄생하듯, 내 고통에 날개를 달아 주십시오.

17.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그런 일이 닥쳤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내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꾸며낸 일도 아니니까요.

인생이란 어차피 모순투성이,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서러운 한(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아픔을 등에 지고 한걸음 또 한걸음 떼며

우리도 골고다를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18.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지울 수 없는 기억과 상처 때문에

여전히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기가 두렵습니다..

19. 그러니 하나님, 내 손을 잡아 주십시오.

내가 떨쳐 일어나 반듯이 설 수 있도록 떠받쳐 주십시오.

내 분노에 같이 떨며, 내 고독에 같이 외로워하는

위로의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을

나는 오고 오는 서대에 전하렵니다.

20. 당신은 해방과 평등의 하나님인 것을 알기에

내 숨통이 트입니다. 내 인생에 비록 재난과 불행이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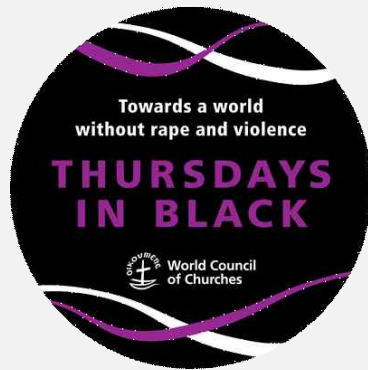
사람들은 ‘팔자가 사납다’고 놀려대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던 나의 기를 다시 살려 주셔서

무덤 같은 시간을 박차고 소생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21. 나를, 운강 당하고 갈기갈기 찢긴 레위인의 첩이나
 근친강간 당한 다윗의 딸 다말처럼 버려두지 마십시오
 내 삶을 전보다 더 잘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놀라 자빠지게 하십시오.
22. 하나님이 여는 새 세상, 하나님이 세우는 새 질서가
 ‘이미/아직’의 줄다리기를 합니다 나를 통해 이미 경험되었으나,
 아직 이 땅에 편만하지는 않습니다.
 그 날에 내가 북 치고 장구 치며 맨발로 앞장서서
 부활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그러다가 지나온 세월에 속이 상하면
 땅에 풀썩 주저앉아 주성지게 ‘한오백년’을 뽑으렵니다.
23. 하나님은 나의 웃음, 나의 눈물, 내 넋두리도 달게 받아 챙기시는 분.
 내가 짓밟힐 때 함께 계셔서 유린당하고,
 내가 골백번도 더 죽음을 생각할 때 나보다 먼저 달려가 죽으신 분.
24. 하나님이 그 눈물로 내 몸 구석구석을 닦아주시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 딸아, 거룩하다!” 속삭이심으로
 나는 다시 태어나 노래합니다.
 나를 수렁 속에 던져 넣고 내 불행만 노리던 자들,
 한 번의 죽임으로도 성에 안차 두 번 세 번
 나를 죽인 세상의 눈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흑색 목요일 캠페인

“흑색 목요일(Thursdays in Black) 캠페인”

배현주 교수(WCC 중앙위원/Gender Advisory Group)

성폭력과 젠더폭력(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은 강간을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는 폭력적 갈등상황과 이러한 종류의 폭력을 영속화시키는 일상적인 침묵의 문화에서 계속 양산되고 있다. 2018년 노벨평화상은 전쟁 성범죄에 맞선 이라크 여성운동가 나디아 무라드와 성폭력 피해자들의 치료와 생명 회복에 헌신한 콩고의 의사 드니 무퀘게에게 수여되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계획은(SDGs) ‘아동결혼’과 여성 성기 절제의 범죄를 2030년까지 근절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2018년 WCC는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며 강간과 폭력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흑색 목요일’ 혹은 ‘목요일엔 검은 옷’(Thursdays in Black) 캠페인을 재출범하였다. 목요일에 검은 옷을 입고 이 캠페인 구호가 적힌 동그란 핀을 옷에 다는 간단한 운동이다. 이 핀은 자신이 강간과 폭력을 방조하는 모든 태도, 문화, 구조에 저항하는 세계적 운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캠페인에서 ‘검은 색’은 인종적 의미가 아니라 저항과 탄력성의 색조로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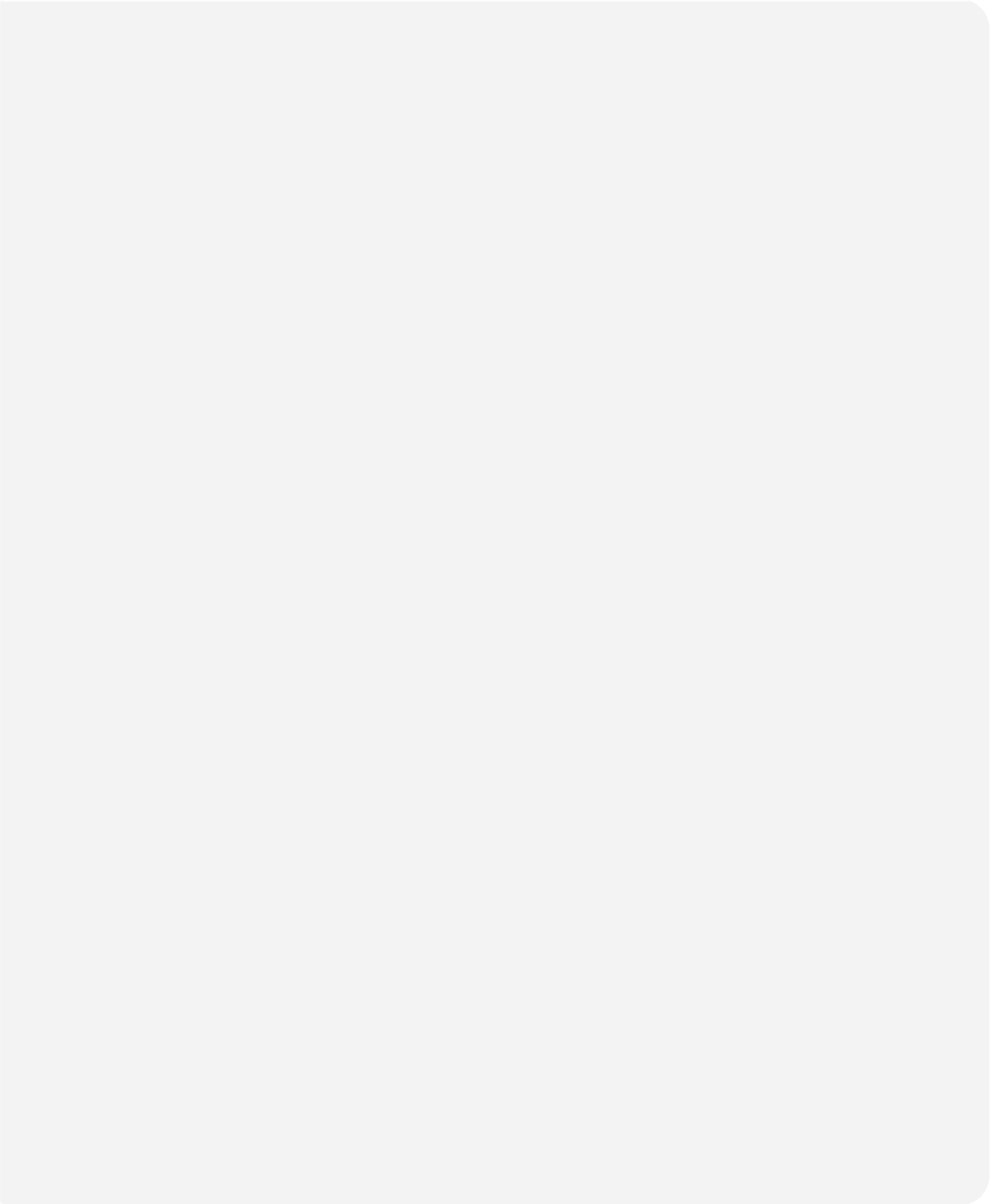
본래 이 캠페인은 세계 다양한 지역의 여성운동들이 합류한 결과로 이루어졌다. 1977년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광장에서 목요일마다 모여 자녀들의 실종을 탄식하며 폭력적 독재정권에 항거했던 아르헨티나 여성들의 “사라진 자녀들의 어머니회”,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검은 옷의 여성들”(Women in Black), 강간을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것에 항거하였던 르완다와 보스니아의 여성운동, 인종격리정책의 폭력에 저항한 남아공의 ‘검은 띠’(Black Sash) 운동 등이 그 예이다.

올해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여성과 함께 하는 교회 십년’(the Ecumenical Decade of Churches in Solidarity with Women: 1988-1998) 운동의 20주년을 기리는 국제협의회가 자마이카에서 개최되었다. 이 ‘십년’ 운동은 ‘유엔여성십년’(1976-1985)에 대한 교회적 응답으로서, 교회가 성차별을 비롯하여, 인종차별, 계

급차별 등 모든 이데올로기적 차별과 문화적 차별을 뛰어넘고, 특히 성차별을 영속시키는 가르침과 관행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 중의 하나로 삼았었다. 이 운동은 세계 모든 지역의 여성들이 직접 간접의 폭력을 겪고 있으며 여성들이 겪는 폭력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망라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여성과 함께 하는 교회 십년’ 운동은 추후 WCC의 ‘폭력극복 십년’ 운동(2001-2010)의 태동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이렇듯 강간과 폭력에 저항하는 ‘흑색 목요일’ 혹은 ‘목요일엔 검은 옷’(Thursdays in Black) 캠페인은 WCC의 과거 여성평화운동을 21세기에 계승하는 운동이다.

<https://www.oikoumene.org/en/get-involved/thursdays-in-black>

- 메모 -





We observe

**THURSDAYS
IN BLACK**

**Towards a world
without rape and violence**

Join the campaign

#ThursdaysinBlack